

Happy Gumi inside the citizens

「해외지방자치제도 비교 견학」

구미시의회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구 미 시 의 회

목 차

I. 해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2. 연 수 목 적
3. 연 수 기 간
4. 연수자 명단
5. 연 수 일 정

II. 연수국 소개

1. 대 만
2. 싱가포르
3. 말레이시아

III. 연수국 주요 방문지

1. 대 만 - 종리시의회, 종리시청, 종리시복지관
2. 싱가포르 - 도시재개발국, 주룽새공원,보타닉가든
싱가폴 정수기관, 센토사섬
3. 말레이시아 - 아부바카르이슬람사원, 회교무덤

IV. 연수 후기

I. 해외연수 개요

1

연수국

○ 대 만(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 중국의 동남쪽 타이완 해협에 위치한 나라로 대만이 주장하는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일반적인 명칭은 대만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밀린 국민당이 남쪽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로, 쑨원(孫文)을 국부로 삼고 있다.

○ 싱가포르(Republic of Singapore)

-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폴은 14세기 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라는 뜻으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게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 말레이시아(Malaysia)

-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제를 선택한 입헌군주국으로 공식 명칭은 말레이어와 영어로 공히 **Malaysia**이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로,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지구(혹은 연방직할령)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14개 주로 독립한 후, 1965년 싱가포르가 탈퇴하여 13개로 줄어들었다.

2

연수 목적

- ▷ 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실태 비교 견학
- ▷ 외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상호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자치 역량 제고

3

연수기간 : 2008. 9. 19 ~ 9. 24 (4박 6일)

4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1	구미시의회	김익수부위원장	10	산업건설위원회	허복의원
2	의회운영위원회	박교상위원장	11	"	이갑선의원
3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위원장	12	"	윤서규의원
4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위원장	13	"	구자근의원
5	기획행정위원회	전인철의원	14	"	우진석의원
6	"	김상조의원	15	행정 6급	윤동욱
7	"	장세만의원	16	행정 7급	김교화
8	"	박광석의원	17	행정 7급	김현주
9	"	정근수의원	18	기능직	문수진

5

연수일정

일 자	출발지	도 착 지	방 문 지	업 무 수 행 내 용	비 고
제 1 일 9/19(금)	구 미 (04:30) 인 천 (10:30) (KE691)	타이페이 (12:05) (전용버스)	• 중리시의회 • 중리시청 • 중리시사회복지센터 • 중리시장주최만찬	• 인천공항출발 • 타이페이 • 지방자치제도 비교 견학 • 의원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 사회복지시설운영 실태견학	
제 2 일 9/20(토)	타이페이 화 련	화 련 (열 차 전용버스) 타이페이 (항공)	• 화 련 아미족,테로각 협곡 (장춘사,연자구,구곡동, 자모생)시찰 • 대리석공장 견학	• 문화유적보존 실태 견학 • 지역개발 및 산업육성 실태견학 • 도로교통시설 관리 실태견학	
제 3 일 9/21(일)	타이페이 타이페이	타이페이 (전용버스) 싱 가 폴 (항공 SQ877)	• 대만총통부 • 중정 기념관 - 대만출발/싱가폴 도착 (14:20) (18:45) - 이동(4시간 25분)	•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견학	
제 4 일 9/22(월)	싱 가 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 가 폴 조호바루 (전용버스)	• 도시개발 전서관방문 • 시민공원 운영실태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동 • 도심 공공시설 운영실태 (장묘시설 원주민마을등 방문)	• 도심 공공시설 관리운영 실태견학 • 도시공원(조경)관리실태 • 도시공원개발시설 • 문화유적 및 시설 보존 및 운영 실태 • 장묘문화실태 파악	
제 5 일 9/23(화)	조호바루 싱 가 폴 (항공 KE 642)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전용버스) 싱 가 폴 22:50	- 싱가폴로 이동 • 싱가포르 정수기관 (Newater 방문) • 시민휴양시설 참관 (센토사섬) - 싱가폴공항 출발	• 수돗물 정수시설 및 슬러지 처리 기술 벤치마킹 • 시민휴식시설 휴양지 개발시설 참관	
제 6 일 9/24(수)	인 천 (06:00) 구 미 (10:00)		인천국제공항 도착 도착 후 해산		

II. 연수국 소개

1 대 만 [中華民國]

□ 개 요 : 중국 동남쪽 타이완 해협에 위치한 나라

- ◆ 수도 : 타이페이(台北, Taipei)
- ◆ 인구 : 약 2,400 만명
- ◆ 면적 : 3만 6190km²
- ◆ 기후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 주요 민족 : 한족/원주민
- ◆ 언어 : 북경어(공용어), 대만어
- ◆ 종교 : 불교/도교/기독교/천주교
- ◆ 통화 : 뉴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

NT\$이며, 원(元)으로 표기

- ◆ 총통 : 마잉지오(馬英九)



□ 문 화 :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곳

◆ 중국문화

- 타이완은 중국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
- 고궁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한 5,000년 역사에 버금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중국보물과 미술품이 62만점에 달하며, 중국황실 컬렉션 중 최고의 것들로 보관
- ⇒ 중국선조시대의 훌륭한 문화 유적과 타이완 안에 숨겨고 있는 중국 문화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원주민 문화

- 신비한 관습과 원주민생활의 전통, 수확축제(Smato), 사냥
기원제(Mabuasu), 토테미즘 등 다양한 토속 문화들이 타이완
문화에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직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깊은 산중에서 생활을 하며
아직도 **아메이족(阿美族)**, **뿌농족(布農族)**, **피난족(卑南族)**,
등 10여 종족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와 전통, 부족체계를 유지

◆ 객가 문화

- 객가문화는 타이완섬 및 중국본토의 문화적 요소들이 많은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ex) 대표적 객가인 : 쑨원, 덩소평, 싱가포르 전수상 이광인

* 객가인 : 한족의 지류로 중국 곳곳을 떠도는 특정 민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교)

□ 타이완과 한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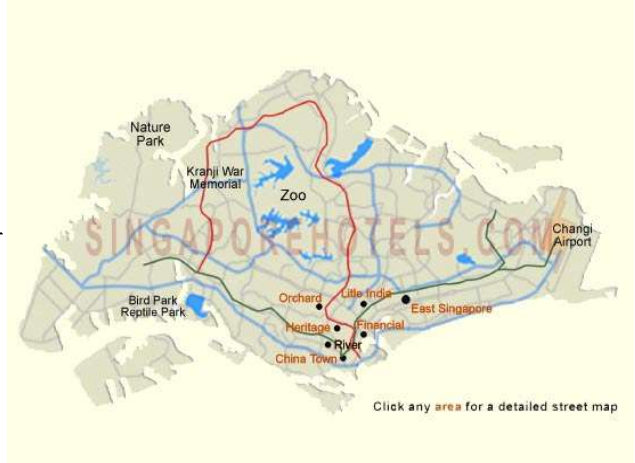
- ◆ 1948년 11월 남한과 단독 수교를 맺고 같은 분단국가 입장에서 긴밀한 정치·외교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에 따라 타이완측은 한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9월에는 항공협정을 중단, 1993년 7월 실리외교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결정하고 비공식수교 협정에 조인했으며, 2002년 10월에는 타이완 국적 항공기 운항이 10여년 만에 재개됨

2

싱가포르

□ 개 요 :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공화국, 법률과 그 집행이 엄격한 나라

- ◆ 수도 : 싱가포르(Singapore)
- ◆ 인구 : 약 448만명
- ◆ 면적 : 685.4km²
- ◆ 기후 : 온난다습, 태풍이 거의 없다
- ◆ 주요 민족 : 중국계/말레이계/
인도계
- ◆ 언어 : 영어/말레이어/중국어
- ◆ 종교 : 불교/회교/기독교
- ◆ 통화 : 싱가포르달러(SGD, S\$)
- ◆ 수상 : 이현룡



□ 정 치 : 사회민주주의국가

◆ 의원내각제국가

-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실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1959년 제1회 입법의회선거에서 인민행동당(PAP)이 다수를 획득한 이래 리강야오(李光耀) 수상이 이끌면서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 국방정책은 무기자체생산 및 각종 최신무기를 도입하는 등 자주국방정책을 적극 추구하고,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 사 회 :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

◆ 아시아 금융사업과 중계무역의 중심지

- 동·서양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아시아의 싱가포르를 'Clean & Green', '별금의 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국가이다.
- 과거 정글뿐이던 가난한 섬나라, 싱가포르
하지만 19세기 후반, 자유항의 매력에 끌려 중국, 인도 등지로 부터 몰려든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중심이 돼 이민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켰다. 바로 이들이 싱가포르의 오늘을 있게 한 힘이며, 세계의 중계무역 교차로, 관광의 중심지, 금융사업 의료기기사업(외과분야)이 발달한 명실 공히 동남아시아의 관문이다.

□ 문 화 : 싱가포르 속 또 다른 세계를 맛나다

◆ 다민족국가

-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싱가포르엔 중국계, 인도계, 아랍계 말레이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
 -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차이나 타운
 - 거리 가득 인도의 짙은 향이 느껴지는 리틀 인디아
 - 빛나는 황금빛 돔과 이슬람 사원의 거리 아랍 스트리트
 -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페라나칸
- ⇒ 신이 버린 땅에서 신이 선택한 나라가 된 싱가포르는 다양함과 독특함으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어우러져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의 모자이크를 완성해가는 나라이다.

3

말레이시아

□ 개 요 :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 수도 :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 인구 : 약 2,300만명

◆ 면적 : 329,758km²

◆ 기후 : 열대지역(고온다습)

◆ 주요 민족 : 말레이계/중국계/인도계

◆ 언어 : 말레이어/영어/중국어

◆ 종교 : 회교/불교/힌두교

◆ 통화 : 링깃(Ringgit, RM)



□ 정 치 : 입헌군주제

◆ 입헌 군주제의 정치체제

- 헌법상 국가원수(국왕)는 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을 뺀 9개 주의 통치자인 술탄(Sultan) 중에서 선출된다.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왕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통솔권 등을 갖는다.

□ 경 제

◆ 제조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기반

- 주로 주석, 팜유, 석유를 생산 수출하며, 제조업과 관광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내세웠던 ‘비전 2020(Vision 2020)’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문 화

◆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

-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의 결집으로 인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 종교와 문화는 이슬람과 중국, 인도, 서구의 가치가 서로 혼합되어 고유의 의식들을 형성하였고, 여러 종류의 복장, 관습, 노래, 춤 등의 전통 문화를 발생시키는 한편 문화 간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Ⅲ. 연수국 주요 방문지

1 대 만

□ 중리시의 일반현황

도 시 명	타이완 타오위엔현 중리시 (도원현 중력시)		
	臺灣省 桃園縣 中壢市 環北路380號		
결연일자	1989년 11월 6일		
면 적	76.52km ²	인 구	37만명
홈페이지주소	http://www.junglicity.gov.tw		
시 장	叶 步梁 (협보량, 이에 뿌리양)		
도시특성	대만 북부 도원현의 중심도시로 800여개 중소기업이 소재하며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위 치



□ 중리시의회(中壢市民代表會)

◆ 중리시의회 일반 현황

- 시민대표 총인원 : 27명 (남 :20명, 여:7명)
- 주석(1명), 부주석(1명), 대표(25명)
- 임기 : 4년
- 선거구 : 5개 선거구
- 시민대표 국회의원이 추천 : 국민당(80%), 민진당(20%)



◆ 중리시민대표회 주석 오가화(吳嘉和) 환영사

- 멀리서 친구분들이 오셔서 기쁘고 환영
- 양 시 상호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
-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확고한 자매도시 결성

◆ 구미시의회연수단 단장 부의장 답사

- 1989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국제사회 아남에 의해 잠시 교류 중단
- 연수단 방문이 양 시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어 확고한 우정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

□ 중리시청(中壢市公所)

◆ 중리시와 자매결연 현황

- 결연일자 : 1989년 11월 6일
- 결연장소 : 중리시청
- 1992년 국교중단으로 2007년 7월까지 중단
- 교류재개 : 2007년 7월 18일



◆ 중리시장 협보량(叶 步梁) 환영사

- 중정국제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중리시 방문 감사
- 구미와 중리시는 변화과정이 비슷(농업 → 공업 → IT산업)
- 부유하고 건강한 도시 구미에 배울 점이 많으므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장·단점 개선하여 더 나은 도시로 발전 희망
- 대만 연수 중 지도하실 부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연수 기원

◆ 구미시의회연수단

- “활력이 넘치는 도시” 중리시의 가슴 따뜻한 환영과 우정에 감사
-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므로 정치, 경제,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교류로 형제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
- 초·중·고 핸드볼 상호 전지훈련 교류 제안

□ 중리시사회복지관(Social Welfare Hall of Jungli City)

◆ 중리시복지관 일반 현황

- 시설규모 : 5층
- 운 영 : 시민대표가 경영
- 프로그램 : 4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 “자선공익”(慈善公益) “세계화평”(世界和平)이라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메가폰으로 “안녕하세요”!!를 열열히 외치면서 연수단을 환영해 주고 있는 복지관 직원들



- Social Welfare Service :
Community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 for Early Youth and Children
⇒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예술(미술·악동)로 치유하는 프로그램
- Social Welfare Service : Courses for Good Health
⇒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으로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 대만민주기념관(台灣民主紀念館, 구 중정기념관 中正紀念堂)



- 타이베이 민주기념관은 영웅 장개석을 위한 타이완의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
 - 광대한 정원위에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 등이 배치 25톤짜리 장개석 총통 동상이 본 건물로부터 도시를 바라보고 있음
 -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생애의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우아한 명나라식의 아치가 정문이며 양측에 두 개의 고전적 건물이 있는데 각각 국립극장과 콘서트홀이다. 두 건물 사이의 광장은 특별한 축제일에 모임의 장소로 활용
- ⇒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전 총통이 ‘중정기념관’을 ‘대만민주기념관’으로 명칭 변경한 사유로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타이완 사람들은 장개석(중정)을 국부로 섬기고 존경
- 1층 전시실에서 만난 박정희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과의 정상회담 사진

□ 도시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도시재개발국 일반 현황

- 1974년 싱가포르 국가개발청 산하기관으로 설립
 -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 5개부서 1천여 명 근무
 -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는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모토
 - 싱가포르 도시계획은 콘셉트 플랜(도시기본계획)과 마스터 플랜(도시관리계획)으로 진행
 - 구체적 역할은 콘셉트 플랜, 마스터 플랜, 개발지침계획을 수립, 더 나아가 주요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개발 컨설턴트 역할 수행
- ⇒ 개발가와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축물대장, 도시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



□ JURONG새 공원(Jurong Birdpark)

◆ 세계 최고의 조류 생태 전시장으로 새들의 천국

- 멸종위기에 처한 12종의 새들을 포함하여 600종 9,000여 마리의 새들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원 안에서 자유롭게 서식



□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s)

◆ 싱가포르 식물원은 아열대섬의 무수한 공원들 중 대표적인 공원

- 오차드 로드 옆에 위치한 공원으로 52헥타르의 방대한 부지위에 원시림과 프랜지페니 장미, 관상용 식물 등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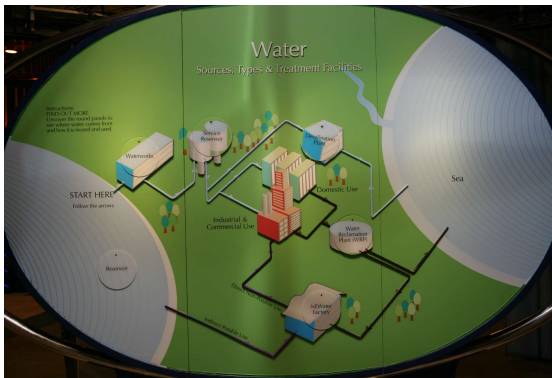


⇒싱가포르는 영국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깨끗한 나라로 들어서면 순간 유럽 느낌과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휴식 공간

□ 싱가포르 정수기관(Newater)

◆ **뉴워터(Newater)** - 한 번 쓰고 버린 물을 정화 처리해 다시 쓸 수 있게 만든 물 “**새로 태어난 물**”(新生水)

- 싱가포르 환경청 산하 하수처리 관련기관인 뉴워터 센터
- 자체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빗물과 해수 담수화 과정을 거친 물을 비롯해 인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물과 하수를 다시 정수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 1단계 : **미세여과** 장치 통과 $0.2\mu\text{m}$ ($1\mu\text{m}$ 는 100만분의 1m)보다 큰 알갱이들이 걸러지는 과정
 - 2단계 : $0.001\mu\text{m}$ 크기의 입자를 거르는 **역 삼투압** 장치 통과 과정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중금속 염화물이 걸러짐)
 - 3단계 : **자외선 소독** ⇒ **새로운 물(Newater)** 탄생
- 하루 수돗물 소요량 3억 갤런 가운데 일부인 200만 갤런을 쓰다버린 물로 재생하여 뉴워터를 생산하는 공장



□ 시민휴양시설 센토사섬(Sentosa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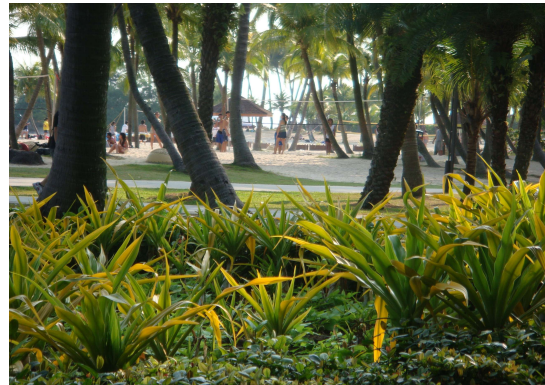
◆ 작은 도시 싱가포르 속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섬

- 싱가포르 대표관광지로 사랑받는 테마파크로 싱가포르 본 섬에서 800m가량 떨어진 센토사섬은 동서4km 남북 1.5km에 불과한 작은 섬
- 섬 안을 이동할 때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되는 버스 노선으로 6개 지역에 정차하여 섬 전체 관람

⇒ 모노레일인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이용 사방이 유리로 된 지상 100m 높이 케이블카에서 싱가포르의 시원한 전경을 감상 섬 전체가 “**인간이 만든 낙원**”이었다.



(Siloso Beach)



□ 싱가포르 상징 조형물

◆ 머라이언상(Merlion)

- 머리는 사자 몸통은 물고기 모습을 한 상상의 동물
- 싱가포르 관광진흥위원회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식 상징으로 선정한 조형물



□ 조호바루 : 말레이시아 남부 국경 도시

◆ 아부바카르 이슬람 사원

- 1892년부터 8년동안 아부 바카르가 건립한 이슬람 사원
- 빅토리아 양식의 흰 벽과 파란 지붕이 인상적이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 함
- 예배당은 2,000명 수용



◆ 회교무덤

- 캄푹 민속 마을 가운데 있는 회교 무덤으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택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 무덤의 위치와 크기가 상이

◆ 캄푹 민속 마을

- 캄푹(말레이어로 '마을')에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나무 악기인 앙크룽, 큰북 여주와 손가락 움직임이 특이한 말레이 무용으로 환영
- 말레이시아 시골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IV. 연수 후기

-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고, 더불어 함께 떠나는 ‘해외연수’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과 구미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하여 재조명하게 하는 겸허하고 소중한 시간을 주는 길이었다.
- 구미시의회 의원 14명은 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운영 및 문화 체험을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비교 견학을 위하여 4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였다.
- 연수국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대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리시의회와 시청, 사회복지관, 싱가포르는 도시개발 전시관, 정수기관, 시민휴양시설 참관, 말레이시아는 도심속의 민속 문화 체험 및 장묘시설 견학으로 대부분 공공시설 기관과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 이번 방문한 3개 나라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아시아 국가이며, 서양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를 지내고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가슴 아픈 역사적 시련을 이겨낸 국가라는 것이다.
- 이들 3개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적도 부근 태양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밝고 따뜻했으며, 다민족 국가로 피부색, 생김새, 종교, 생활풍습은 각기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잘 터득하고 어울림 문화를 잘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 인천공항에서 신비의 섬 제주도를 거쳐 투명한 스카이블루의 하늘과 바다를 지나 2시간 30분 걸려 도착한 대만의 첫 느낌은 화창한 날씨와 약간의 더위가 느껴지는 기온, 거리풍경, 고속도로의 모습이 흡사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낯설지가 않았고, 생김새와 문화도 거의 흡사하였으며, 우리 민족처럼 신명이 있는 다정다감하고 유쾌한 민족이었다.
- 대만의 중리시와 우리 시는 1989년 자매 결연을 맺었으나 국제적인 이념에 따라 국교 단절이라는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작년부터 교류를 재개한 도시로, 연수단의 방문이 양 시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교두보 마련으로 확고한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가슴 뿌듯한 연수일정이었고, 더불어 초·중·고 핸드볼 상호 전지훈련을 통하여 양 시의 우호증진과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활력이 넘치는 도시 "Smile" 중리시 관계자들이 이국 만리에서 방문한 연수단 일행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형제애”를 느끼게 해 주는 환대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가슴 깊숙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샘솟았다.
- 대만민주기념관을 방문하면서 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장개석 총통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념관의 규모와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과 부러움을 느꼈다.
-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공사 등 현재의 한국경제 기반을 닦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이면서도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에 가슴이 메어졌으며,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 현재 추진 중인 박대통령 홍보 영상관과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만민주기념관을 모델 삼아 원활하게 추진하여 도시이미지 제고로 관광자원화를 기하고 구미의 명품 관광지로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완성되었음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 중리시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 보조 재원과 독지가들의 성금기탁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민대표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그들의 모습과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어떠한 자세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이 되어 주었다.
- 싱가포르 정수기관 뉴워터는 오·폐수를 정화해 다시 쓰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쓰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곳으로 뉴워터 비지터 센터(Newater Visit Center)는 물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으로 관광자원화 되어 있었다.
- “물”은 수입하되 “물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세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지하수와 강변 취수 등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물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물 관리 정책을 펴서 물을 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중한하고 중요한 자원을 “워터 허브”인 싱가포르의 뉴워터 정수기관 방문을 통해서 절실히 공감했으며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관 모형을 보면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정책을 통하여 우리 구미 또한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마스터플랜을 통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연상되는 상징조형물과 도시마다 고유한 인상과 느낌을 지니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국가마케팅과 국가브랜딩이 강한 나라로 외국인이 투자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든 시티(Garden City)’, ‘워터 시티(Water City)’ ‘머라이언상(Merlion)’ 등 상징조형물과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중리시 또한 “陽光活力 微笑 中壢”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도시 브랜딩을 하고 있었으며, 시민들 모습 또한 밝고 활력이 넘쳐 보였다.

- 구미도 ‘Yes Gumi’,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라는 도시브랜드와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구미에 대한 강한 이미지와 관광 욕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와 산업,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유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시브랜딩에 힘쓰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다.

- 말레이시아를 방문 했을때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택가 한복판에 회교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 무덤의 위치와 크기가 상이했다. 장묘문화 개선과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화장시설 건립이 현안 과제인 우리 입장에서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접목해 볼만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 이번 연수를 통하여 깨달은 점은 “아시아의 4마리 용”에 포함되는 대만과 싱가포르 모두 다 가족 중심적이고 작게 시작한 일들을 내실을 다져 크게 키워 나가는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를 품고 있는 나라였으며,
- 서로 다른 민족끼리 어우러져 이색적이며 또 다른 아름다운 문화를 모자이크해 나가는 나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평화와 공존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나라였다.
- 우리가 방문한 아시아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어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 잘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연수보고를 끝내고자 한다.